

# “황 권한대행, 방통위원 내정인사 철회해야”

###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소위 ‘친박 공무원’ 임명하려는지 그 의도 묻지 않을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박근혜 전 대통령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정부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부속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뜻에 반하는 부적절한 방통위위원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일박기 인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열치없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상임위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로 3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도 오는 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주요 의결사항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경선후보가 3일 서울 고척동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고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후임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차기 정부 초기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최대한 앞당겨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방통위 공백과 행정 차질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왜 박 전 대통령의 방통비서관을 역임한 소위 ‘친박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을 이 시점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김 실장 한명을 살리기 위해 방통위 조직 전체를 죽이는 인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방통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 박지원, 홍준표·유승민 논평 ‘금지령’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당 대변인단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관련 논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안철수 대 문재인’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 진영 후보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가 안 전 대표에게 ‘열치기 좌파’라고 비난한 데 대해 “그분의 터진 입을 누가 막겠는가. 우리는 대꾸하지 않겠다”라며 “우리 대변인들에게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에 대해서 가급적 논평이나 발언을 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이 홍 지사에 대해 재차 물었지만 “홍준표 후보까지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가진 민찬 자리에서도 김경진 수석대변인에게 “우리 대변인들도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일체 코멘트하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최근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한 비판은 물론, 반격도 일체 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공세와 안 전 대표의 ‘사면 발언’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박 대표가 이같이 ‘홍준표·유승민 언급 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표와 국민의당은 그동안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를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3~4위권에 그쳐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지지율 2위에 안착하며 이같은 구상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표는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얻어 양자구도 띄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를 보면 7명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지만, 다른 후보들의 득표는 유의미하기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구도가 형성되고, 그런 의미에서 양자구도라고 예측했고, 그것이 맞아 돌아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동시에 ‘홍준표·유승민 무시 전략’을 쓰고 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대선 문 전 대표에게 공세를 집중해, 양자 구도를 굳히려는 판단이다. /뉴스시스

## 김종인-정운찬-홍석현 후보단일화 이변주 ‘결정’

‘제3지대론’의 중심에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이 급주 내 후보단일화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전북도의회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이 불발된 것이 아닌 잠정 연기된 것이다”며 “급주 안에 이뤄지는 회동을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차기 정부의 ‘통합정부’ 추진과 19대 대선 통합후보 선출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합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의 내용 중 조율 할 부분이 있어 회동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통합정부와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은 김 전 대표와 홍 전 회장과도 같다”면서 “3명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이룰 건지, 기존 정당 대선 또는 새로운 인물(인사)을 후보로 내세울지 등은 급주 내 회동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 김광수 의원, ‘고교 현장실습생 보호법’ 대표발의

### “업체 지도점검 강화·벌칙 조정 등 통해 실습 과정·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 기여 기대”

지난 1월 23일, 전주의 IG유펙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빠 나 오늘도 볼 수 못 채웠어...’라는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비극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여고생이 사망한 지 3일 후인 1월 25일에는 여수산단 대립산업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기도 특성화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외식업체에 취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3일, 부당한 계약,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

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근로권과 학습권을 모두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있어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6년 많은 문제 제기로 실질적으로 폐지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됐지만, 취업을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결국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됐고,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과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적성과 무관한 일터에서 절망부터 배우게 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 추미애, 안철수 직격 “촛사면 주장... 자격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위원회 구성’ 논란과 관련해 “벌써부터 기소조차 안 된 죄명의 본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 세력이 정권교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안 전 대표를 직격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투표에서 “우리 민주당 60년 역사에서 분열할 때 패배했고 통합할 때 승리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해야 하는 국론분열 세력, 지역주의 조장 세력이 나라의 미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며 “무슨 염치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보낸단 말이나”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악의적 연대를 시도해 ‘독재 공화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폼수 연대세력이 있다”며 “이런 정권 연장 운운은 민주당의 집권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기득권 연대로 부패패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을 꺾어버리고 정권연장을 노리는 세력의 마지막 저항 아니겠느냐. 단언컨대 음모는 음모로 멸망하며, 폼수는 폼수로 패망한다”고 직격했다. /뉴스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장비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